

# 흠의 감성 미학과 공감의 원리\*

맹 주 만·김 다 슴\*\*

**주제분류** 미학, 예술철학

**주요어** 미적 판단, 취미, 공감, 감성 미학, 관계적 속성, 관계 미학, 공감 미학, 유용성, 편의성

**요약문**

이 글은 미적 판단의 상호주관적 일치와 불일치 문제를 다룬다. 근대 미학도 미의 정의 및 취미의 다양성과 차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과 함께 성장해왔다. 흠의 미학은 이 문제를 인간 본성에 관한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논구한다. 먼저, 미의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미를 사물 자체도 감정 자체도 아닌 쾌락을 매개로 하는 주관과 대상 사이의 관계적 속성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흠의 감성 미학은 곧 관계 미학의 성격을 갖는다. 다음으로는 흠의 공감의 원리를 미적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문제를 설명해주는 열쇠로 해석한다. 흠은 보편적인 미적 판단의 가능성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보편적 감정으로서 공감의 원리에서 발견한다. 그러나 보편적 판단의 원천으로서 공감의 원리가 개인과 상황에 따른 평가의 변화 가능성을 허용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 이 글은 취미의 기준과 비평가의 자격 조건에 관한 흠의 주장을 통해서 미적 판단의 경우 그와 같은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이 논문은 2013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 1. 미적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우리는 자연이 빚어낸 작품에 대해서 또는 낭만주의나 해체주의 등 특정 예술 사조를 표방한 작품에 대해서도 아름답다, 숭고하다, 우아하다, 웅장하다, 비장하다, 신성하다, 신비롭다, 기이하다, 허무적이다, 스타일리쉬하다, 멜랑콜리하다는 등등의 평가를 하기도 하며, 이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반대하기도 한다. 공간을 예술창작에서 활용하는 등 종합예술의 세계를 개척한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벽화 <베토벤 프리즈>(1902)는 한편으로는 전혀 예술적이지 않은 파격적이며 파괴적인 작품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비극적이면서도 성스러운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또한 상업예술과 순수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등 고전 예술이나 모더니즘을 뛰어넘어 현대미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작품 <브릴로 상자>(1964)를 어떤 사람은 예술작품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예술작품들이 이런 일들을 겪는다.

일반인이든 전문적 비평가이든 한 예술작품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평가를 접하는 경우는 드물다. 때로는 아주 상반되는 비평을 접할 때도 많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술의 시대라 칭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술작품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또 그 만큼 다양하거나 상반되는 비평들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평가들 각각에는 모종의 일치가 존재하거나 그러한 일치에로 수렴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예술의 예술다움을 객관적인 척도로서 평가하며, 어떤 이들은 미적 인식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혹은 예술과 삶을 동일시하는 등 진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로 인식하거나 심지어는 모든 것이 예술일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미 혹은 예술을 바로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객관적이

거나 보편적인 기준과 경계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순한 모방이나 재현과 같은 정형적인 형식이나 기준 등의 미학적 규범을 부정하며, 예술을 삶의 실천이나 정치적 실천을 표현하는 행위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미학적 평가는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인 감정적 느낌의 문제이거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치적이거나 윤리학적 실천의 문제인가? 혹은 그 이상의 근원을 갖는 형이상학적 진리의 문제인가? 하지만 아무리 상이하고 특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 비록 서로 상이한 평가자로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무리들 혹은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누군가와 미적인 것 혹은 예술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공감한다. 그러면 미에 대한 개념 정의의 문제를 포함해서 미적 판단의 상호주관적 일치나 불일치와 같은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애초에 근대 미학 또한 일찍이 이 같은 현상을 인식했으며, 이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시도와 함께 성장해왔다. 뒤이은 칸트의 공통감 이론을 예비하고 있는 흠의 공감 개념은 그의 취미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취미에 대한 소통 가능성 논쟁을 둘러싼 문제와 대결하며 발전한 허치슨의 내감이론, 디드로의 모방미학 등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미의 정의의 문제와 함께 당대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취미의 다양성과 차이에 주목했던 흠의 미학이론이 갖는 차별성은 그것이 더욱 철저하게 인간 본성에 관한 일반 이론 위에서 탐구되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감의 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흠은 취미 판단 혹은 미적 판단이 개인들의 주관적 평가를 뛰어 넘는 보편적 소통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흠은 도덕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미적 인식에서도 감정의 보편성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공감의 원리다. 이는 곧 흠이 미적 판단의 일치와 불일

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감은 심리학적 통찰과 부합하는 이점이 있지만, 개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취미의 다양성과 차이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여전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sup>1)</sup> 흄은 「취미의 기준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성의 규칙들 가운데 선형적으로 추론에 의해 정해진 규칙은 없으며, 혹은 어떤 구성의 규칙도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관념들의 관계와 습성을 비교함으로써 지성의 추상적 귀결로부터 산출될 수 없음을 분명하다. 그것들의 토대는 모든 실천과학들의 토대와 동일한 것, 즉 경험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어 왔던 것과 관계있는 일반적인 관찰들에 다름 아니다.<sup>2)</sup>

여기서 흄은 한편으로는 미적 판단의 선형주의와 객관적 실재론을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과 관찰로부터 보편적 만족을 주는 판단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이렇게 모든 판단의 가능 근거를 오로지 경험과 관찰에 입각해서만 발견하려는 흄에게 인상과 관념의 지각작용에서 성립하는 미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정념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미를 판정하는 능력으로서 취미 판단 즉 미적 판단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적 판단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즉 쾌락을 낳는 유용성에 이끌리는 인간의 근원적 성향으로부터 나온다. 이 유용성은 대상의 특수한 성질에 반응하는 인간의 성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미는 이성의 추론능력의 개입이 없이도 홀로 미적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흄에게 미는 객관적 대상이 갖는 속성 혹은 성질이 아니다. 또한 유용성의 성질이 가리키듯이 미의 감정은 순전

1) Dabney Townsend, *Hume's Aesthetic Theory: Taste and Sentiment*, pp. 99-105.

2) D. Hume, *Of the Standard of Taste*, p. 231.

히 주관적인 쾌락의 감정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각 개인마다 미적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상대주의의 미학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논구한다. 먼저, 미의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흠의 감성 미학(sentimental aesthetics)이 미를 사물 자체도 쾌락의 감정 자체도 아닌 대상과 주관 사이의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y)에서 성립하는 일종의 관계 미학(relational aesthetics)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한다.<sup>3)</sup> 다음으로는 흠의 공감의 원리가 미적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문제를 설명해주는 열쇠라고 해석한다. 흠은 보편적인 미적 판단의 가능성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감정으로서 공감의 원리에서 발견한다. 흠은 모든 이의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하는 인류애의 정신을 발휘하게 만드는 공감이라는 근원적인 감정의 원리를 미적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보편적 판단의 원천으로서 공감의 원리가 개인과 상황에 따른 평가의 변화 가능성을 허용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sup>4)</sup> 이에 대해서 이 글은 취미의 기준과 비평가의 자격 조건에 관한 흠의 주장을 통해서 미적 판단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감성 미학에서 ‘감성’의 영문 표현은 sentiment이지만, 그 기본적인 이해는 흠의 철학의 일관된 주제가 이성이 아니라 감성(sentiment)이라는 최희봉의 해석과 일치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sentiment는 감성 이외에도 감정, 정감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희봉, 「감성과 취미에 관한 흠의 견해」, pp. 205-225 참조.

4) 공감의 원리에 입각해서 도덕 판단이 보편적 판단이라고 하는 흠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맹주만, 「흠과 공감의 도덕성」, 『철학탐구』, pp. 50-60.

## 2. 미감과 취미 판단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미와 예술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미에 대한 상이한 이해 방식과 미학적 소통 가능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근대 미학의 문제였다. 아름다운 것과 예술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식에 대해서 흄은 선구적인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게서 우리는 작품의 감상과 해석에서 접하게 되는 불일치 현상을 넘어서 왜 예술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흄에 앞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이성주의적 원칙과는 달리 이미 아름다움을 진위 인식 즉 진리 인식과 무관하게 감정 혹은 정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감성적 인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미학 내지는 예술 철학의 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미적 판단을 정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적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현상을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것으로 당연시하는데 머물렀다. 반면에 로크의 영향을 받은 샤프츠버리, 허치슨, 그리고 흄과 버크로 이어지는 경험주의 전통의 미학은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이론으로서 칸트 미학의 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미적 경험과 미적 판단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취미와 미학이라는 용어가 담아내고 있듯이, 감성의 영역에 두면서 그것의 근본 특징을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는 미감(sense of beauty)의 존재와 미적 무관심성과 같은 지각 현상에서 발견했다. 특히 흄은 이러한 미적 현상을 그의 인식론의 연장선상에서 인상과 반성이라는 지각 경험을 매개로 해서 접근했다.

그런데 미적 판단을 취미 판단으로 보면서도 흄은 이에 대해서 칸트와 전혀 다른 해석을 보여준다. 칸트의 경우에 미적 경험은 단순한 지각 경

힘이 아니다. 칸트는 취미에 관한 판단으로서 미적(aesthetic) 판단을 감성적(aesthetic) 판단 즉 칸트에 고유한 의미에서의 미감적(aesthetic) 판단으로 정의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이성주의 미학에서 미적 판단은 이성 판단이며, 이는 객관적 존재에 대한 사실 판단과 마찬가지로 인식 판단이다. 이렇게 인식 판단으로서 미적 판단은 우리가 미적 경험을 타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아름다움과 추함 즉 미추 판단에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성주의의 미적 판단은 미추에 대한 시비가 가능한 보편적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오히려 미적 판단의 불일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해주지 못한다. 단순히 일정한 객관적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그러한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함께 특히 우리의 미적 경험이 명백히 감정적 느낌과 관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적 판단의 감정적 요소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를 사실 혹은 그것이 갖는 성질이 아니라 쾌락의 감정으로 보는 경험주의는 미적 판단은 객관적인 진위 판정이 가능한 판단이 아니라 쾌와 불쾌의 감각적 느낌과 관계하는 주관적인 감정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감정 판단이 그저 쾌/불쾌의 만족에 있어서 경험의 주체에 따른 주관적 차이를 인정한다면, 그러한 느낌에 대해서 ‘맛다 틀리다’ 혹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18세기의 칸트는 동시대의 경험주의 미학과 달리 미적 판단은 감성적 판단 내지는 감정 판단이지만 그것이 주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선험적인 보편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칸트에 앞서서 흠 역시 미학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연구를 성취했다고 볼 수 있는 허치슨이 주목했듯이 교육이나 편견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에 대한 일반적 동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sup>5)</sup> 칸트가 이 문제를 공통감 개념으로 해결했다면, 흠은 공감 개념으로 그렇게 했다.

미학이나 예술철학이란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넓은 의미에서 문예비평으로도 불릴 수 있는 ‘비평’(criticism)이라는 명칭 아래 고찰되고 있는 흠의 취미론은 문자 그대로 ‘비평적 취미’에 관한 이론으로서 감성 미학을 표방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흠은 체계적인 미학 이론을 제시한 적이 없다.<sup>6)</sup> 모든 경험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고찰하고 있는 흠이 독립적으로 그나마 미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는 직접적으로 취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취미의 기준에 관하여」(of the Standard of Taste)라는 짧은 에세이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취미와 정념의 섬세함에 관하여」(Of the delicacy of taste and passion) 및 「비극에 관하여」(Of Tragedy)와 같은 단편에서도 미학적 소견의 흔적을 접할 수 있다.

일찍이 흠은 『도덕원리연구』(1751)에서 ‘취미는 미(beauty)와 추(deformity), 덕(virtue)과 부덕(vice)의 감정을 제공’하며, 우리가 어떤 미적인 예술작품을 대할 때나 유덕한 행위를 관찰할 때 이성이 아닌 취미에 의존한다고 함으로써 취미가 미와 도덕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 「취미의 기준에 관하여」를 통해서도 흠의 취미론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 이유는 흠이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외관상 주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인의 취미가 어떻게 ‘기준’으로 확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평의 자격이나 조건과 같은 것들에 한정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는 이 에세이 이전에 쓴 저작들의 결론에 해당하는 다소 단정적인 내용들로만 이해될 수도 있다.

5) 허치슨이 밝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감의 보편성에 관하여” 참조 (Francis Hutcheson, *Philosophical Writings*, edited by R. S. Downie, Everman Library, 1994. pp. 31-38.); cf. W. R. Scott, *Francis Hutcheson. His Life, Teaching and Position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pp. 283-284.

6) Peter Jones, “Hume's Literary and Aesthetic Theory”, p. 255; Timothy M. Costelloe, “Hume's Aesthetics: the Literature and Directions for Research”, pp. 87-88.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에세이는 흠의 미학적 소견과 통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7)</sup> 「취미의 기준에 관하여」가 다소 과소평가된 이유들 중의 하나는 외관상 단편적인 소견들로 보이는 언급들을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만일 우리가 이 에세이를 『인성론』과 『도덕원리연구』의 탐구로 되돌아가서 이와외의 연장선상에서 고찰한다면 훨씬 더 생산적이며 독창적인 흠의 견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흠은 ‘미’와 ‘취미’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도덕원리연구』나 「취미의 기준에 관하여」에서와 달리, 초기 저작인 『인성론』에서는 직접적으로 ‘취미’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가 대개는 아름다움의 대상과 그것이 지닌 성질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면, 취미는 이런 논의들을 포괄하여 미의 기준에 대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미와 취미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서도 드러나듯이, 미와 취미를 함께 수집하여 하나의 체계로 엮을 때에만 흠의 취미론의 구성이 가능하다. 흠이 ‘미’를 『인성론』 2권에서 지각의 한 종류로, 그리고 미와 추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근원적 인상(정념)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는 정념(인상)의 한 종류이자 지각의 기본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비해 ‘취미’는 미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포함한다.<sup>8)</sup>

흠이 말하는 ‘미’의 감각은, 그가 정신의 지각을 분류하는 방식을 따르면, 차분한 반성인상이다. 우리의 지각 작용은 크게 인상과 관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인상은 감각인상과 반성인상으로 나눌 때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근원적 인상과 2차 인상으로 나뉜다. 근원적 인상에는 감각의 인상 및 신체적 고통과 쾌락 등이 있고 반성인상에는 정념, 정서,

7) Michelle Mason, “Moral Prejudice and Aesthetic Deformity: Rereading Hume’s ‘Of the Standard of Taste’”, p. 59; Peter Jones, “Hume’s Aesthetics Reassessed”, p. 56.

8) Dabney Townsend, *Hume’s Aesthetic Theory: Taste and Sentiment*, p. 6.

감정 등이 해당한다. 후자인 반성인상은 다시 차분한 인상과 격렬한 인상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통 미와 추 등의 감각은 차분한 것에, 사랑과 미움, 그리고 긍지와 소심 등의 정념은 격렬한 것에 속한다. 흄은 시와 음악 등이 주는 환희가 때로는 절정에 이르러서 격렬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미움, 긍지, 소심과 같은 정념들은 미나 추에서 발생하는 정서들보다 더 격렬하므로 미는 차분한 것에 속한다고 말한다.<sup>9)</sup>

이처럼 미의 감각 혹은 미감은 외형적으로는 인간의 지각 작용을 이루는 여러 인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취미는 이러한 미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미감을 판별할 수 있는 평가적 능력을 가리킨다.<sup>10)</sup> 흄은 『도덕원리연구』에서 원과 기둥의 아름다움을 예로 들면서, 그 때의 아름다움이란 원과 기둥 자체가 갖는 성질이 아니며, 또 그 도형의 모든 속성들에서 감각이나 수학적 추론을 통해 미를 찾아내거나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그것은 세련된 감각의 대상들을 감상할 수 있는 지적인 정신이 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는 곧 미감이 오감과 같은 기초 감각들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갖는 감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미와 취미를 비교할 때 전자는 미감을 통해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 감정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흄에게 미감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니고 있는 독특한 기능을 하며, 때문에 미적 판단과 미적 속성 및 공감의 원리 모두와 관계하는 지위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감정으로서의 미와 능력으로서의 취미를 구분하는 전통은

9) T 2.1.1, 275-277. T는 3권으로 이루어진 흄의 저서 *Treatise of Human Nature*의 약어이며, 쪽수는 권, 부, 절, 셀비 비기(Selby-Bigge) 판의 면수의 순서로 나타냄. *An Enquiry of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은 EPM으로 표기하며 쪽수는 절, 부, 단락의 순서로 나타냄(부록의 경우 부와 단락 구분 없음). 이하 흄의 저서에 대한 약어표기는 참고문헌 참조.

10) T 3.3.1, 576-578.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감각은 지식에 대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촉각이 없으면 취미도 불가능하며, 시각과 촉각이 다른 감각들의 우위에 있으면서 우리를 상상력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감각에서 지식에 이르기까지 위계가 있으며, 이 위계는 취미를 포함하여 각각의 감각을 통합하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위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흠의 미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흠이 암시하듯이 예술에서 취미가 판단에 대한 일종의 은유가 될 때, 그것이 가진 식별하는 힘, 그리고 섬세한 능력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세련된 감각을 가진 감상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단지 특정한 치수들과 비례들을 갖춘 하나의 구조물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오직 그 감상자의 감정으로 부터만 그 기둥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것이다.<sup>12)</sup> 이렇게 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미감은 여타의 다른 감각과 확연히 구별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흠 모두 공통적으로 포도주의 예를 들고 있는데, 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매우 다른 감각들을 쾌락이라는 술어에 한데 포함시키는데, 이 감각들은 쾌락이라는 추상적 술어로 표현되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유사성만을 가질 뿐이다. 좋은 음악 작품과 좋은 포도주는 똑같이 쾌락을 산출하며, 더욱이 이 음악 작품과 포도주의 좋음은 오직 쾌락이 결정할 뿐이다. 그러나 좋음을 쾌락이 결정한다고 해서 이 포도주에는 가락이 어울리고 이 음악 작품은 풍미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목적같은 대상과 사람의 성격이나 정감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족을 준다. 그러나 이 만족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과 사람의 성격이나 정감을 혼동하지 않으며, 사람의 성격이나 정감에 덕이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상에는 덕이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sup>13)</sup>

11)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Ch. 3, 1118a-b.

12) EPM App. 1

이에 따르면, 좋은 포도주가 있듯이 좋은 취미가 있으며, 이런 구별은 곧 취미는 그 외형적 유사성은 있을지라도 단순한 감각 혹은 감각적 쾌락이나 좋음과는 구별되는 미적 판단의 형식을 취한다. 그런 점에서 미적 판단으로서 흄의 취미 판단은 인식적 평가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미감은 그 자체로 미적 판단을 낳는 고유한 감각이므로 그 때문에 미적 감정의 쾌락은 전적으로 미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흄의 완전한 견해는 아니다. 흄은 이에서 더 나아가 쾌를 느끼는 미적 판단을 미감 하나의 기능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만일 미감을 미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로지 감각에만 있는 것이라면 미감이 어떻게 다른 감각과 구별되는 감각인지,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쾌를 느끼고 다른 대상에서는 쾌를 느끼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즉, 미감을 미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나, 아니면 칸트와 같은 선형적 이성주의에 의존해야 한다.

### 3. 미적 감정과 관계적 속성

흄에게 미는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쾌의 느낌이며,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근원은 일차적으로 대상이 아닌 우리 마음에, 다시 말해 감정에 있다. 이는 곧 마음의 내적 상태가 대상의 미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특정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해서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시인이나 부인의 감정을 낳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미적 반응을 쾌락과 반성에 연결시키듯이 그것은 단순한 감각적 만족이나 느낌만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즉, 미는 단적으로 사물 자체에 있는 성질이 아니며, 그렇다고 오로지 마음이 단독으로 만들어내는 감정도 아니다.<sup>14)</sup> 미는 그

---

13) T 3.1.2, 471-472.

고유한 의미에서 미감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감각과 대상이 상호 호응한 결과다.

『인성론』에서 흠은 미가 우리가 여타의 감각적 쾌락과 구분되는 “특유의 기쁨과 만족을 준다.”<sup>15)</sup>고 말한다. 미 특유의 쾌락을 주는 대상이 곧 미인 것이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해서 무엇이 아름답거나 결함이 있는지,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지를 쾌락이나 언짢음의 정서를 수반하는 시인/부인의 감정을 통해서 표현한다. 호의적 내지는 비호의적인 반응과 마찬가지로 좋다 나쁘다거나, 마음에 든다거나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반응들도 모두 이러한 시인이나 부인의 감정 판단들 또는 반성 판단들이다.<sup>16)</sup> 이렇게 우리에게 미적 반응을 일으키는 대상 즉 미적 대상은 감상자에게 시인이나 부인의 감정을 낳는데, 그것이 미추의 감정이다.<sup>17)</sup> 그러므로 미적 쾌락은 마음이 떠올리는 감정이지만 그저 단순히 인식 주체의 감정 영역에서 홀로 발생하는 감정도 미적 대상 자체가 홀로 주관에 산출하는 감정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를 일종의 관계적 속성에서 성립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그리고 이런 속성은 도덕적 속성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사실과 관계 맺는 객관적 속성이 아니다.<sup>19)</sup> 이러한 인식은 마치 흠이 “도덕 판단이 욕구나 혐오를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불시인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본 것처럼,<sup>20)</sup> 미적 판단도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아니라 감정과 대상이 상호 호응하는 관계적 속성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속성의 존

14) T 2.1.8, 229-230.

15) T 2.1.8, 298.

16) T 2.2.5, 358.

17) T 3.3.1, 576.

18) 흠의 인식론 전반을 ‘관계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견해는 Alan H. Goldman, *Moral Knowledge*, pp. 53-90.

19) 같은 글, pp. 59-60 참조.

20) 같은 글, pp. 55.

재는 곧 다른 쾌락과 구별되는 미 특유의 쾌락을 주는 성질이 미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이는 도덕 판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나 유덕함 모두 어떤 대상과 관찰자 한 쪽의 지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맺고 있는 관계적 속성의 산물이다. 비록 그것들은 원칙적으로 미감의 존재처럼 감성 없이는 미의 예로 구체화 될 수 없지만, 그 보다 더 선행하는 조건은 그러한 관계적 속성의 유무이다. 미감은 곧 이에 대한 지각이다. 이처럼 흄은 미추의 감정을 대상에 발견되는 성질과 인간 본성의 구조로부터 생기는 반응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한다.<sup>21)</sup> 다시 말해 미/추라는 쾌/불쾌의 감정은 이들 양 측의 상호작용 혹은 상호 반응의 결과다.

그러므로 관계적 속성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미는 인상과 정념에서 성립하는 주관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정념이나 인상과 구분되는 특성도 갖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즉, 모든 대상이 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적 대상에는 그렇지 않은 대상과 구분되면서 우리에게 미적 쾌락을 일으키는 특성 또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흄은 이런 미적 속성과 관련해서 “미는 부분들의 정연함 또는 그 구성인데, 우리 본성의 1차적 구조나 습관, 혹은 변덕 때문이든 간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쾌락과 만족을 주기에 적합해야 한다. 이것이 미의 뚜렷한 특성이며, 미와 추 사이의 완전한 차이점이다. 따라서 쾌락과 고통은 미와 추의 필연적 수반물일 뿐 아니라, 미와 추의 실제 본질을 이룬다.”라고 말한다.<sup>22)</sup> 그러면 미 특유의 쾌락이라는 표현이 여타의 다른 쾌락과의 차이를 함축하고 있듯이 미적 대상과 미의 감각 사이에는 이 양자를 연결시켜주면서 다른 쾌락적 특성과 구별되는 그런 관계적 특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미를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흄은 이러한 관계적 속성 즉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의 특성과

---

21) T 2.1.8, 298-299.

22) T 2.1.8, 299.

느끼는 만족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속성을 유용성(utility)과 편의성(convenience)의 관념에서 발견한다. 즉, 단적으로 “쾌락은 대상의 형태가 아니라 유용성에서 발생한다.”<sup>23)</sup> 넓은 의미에서 이들 양자에서 발견되는 유용성의 성질이 곧 미 특유의 쾌락을 낳는 대표적인 관계적 속성이다. 그러나 유용성 역시 미적 판단에서만 발견되는 속성이 아니므로 좀 더 엄밀한 성질이 미적 속성 또는 미의 관계적 속성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단순히 그저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면서도 아름다운 대상의 구분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sup>24)</sup> 흠은 우리가 시인하는 미적 대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왕궁의 정연함과 편의성은 그 형태나 외양 못지않게 미의 본질적 속성이다. 마찬가지로 건축의 규칙이 요구하는 비는 지붕의 윗부분은 아래 부분보다 더 가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상은 우리에게 안정성의 관념을 전해 주기 때문이며 이 안정성의 관념은 쾌감을 느끼게 한다. 반면에 이와 반대의 경우는 우리에게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을 주며 이것은 곧 거북한 느낌이다. ... 고통과 쾌락이 생기게 하는 능력이 미와 추의 본질을 있게 하므로, 모든 이러한 성질들의 결과는 감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모든 그것들의 결과인 것인 그런 성질 가운데 자부심과 소심은 가장 공통적이면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sup>25)</sup>

여기서 흠은 유용성의 관념 자체는 비단 미적 대상에 대한 지각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지만, 세부적으로는 유용한 성질을 가지면서도 미 특유의 쾌락을 낳는 성질들을 말하고 있는데, 감각과 결부된 정연함, 편의성, 구성 규칙, 안정성, 합목적성 등 인간의 소용에 적합한 특성들이 미적 유용성의 성질이 갖는 특징들이다. 이런 미적 유용성 자체는 설혹 그것이

23) T 2.3.10, 450.

24) 이런 설명과 관련해서는 T 2.3.8, 432-438.

25) T 2.1.8, 299.

애초에 어떤 실용적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여주는 유용한 성질은 그런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미적 무관심성과도 닮아 있다. 흄은 상술한 경우 이외에도 힘이 넘치는 체격을 지니거나 민첩성을 상징하는 체격을 지닌 동물의 아름다움과 같은 예도 들고 있다.<sup>26)</sup> 이와 같은 미적 유용성의 성질이 쾌락의 감정을 낳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흄에게 미란 곧 쾌락의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힘으로서 감정 자체도, 오감과 같은 감각 자체도 아니며, 뒤보스나 허치슨이 말하는 제6감이나 제7감과 같이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대상이 특정한 조건 아래서 마음이 가진 어떤 성질과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할 경우에만 느껴지는 속성”이다.<sup>27)</sup> 다시 말해서 이러한 속성에서 느껴지는 유용성은 대상 자체가 갖는 성질이 아니라 감정에 미/추와 같은 쾌/불쾌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면서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미라고 부르는 바로 그와 같은 것에 감정이 반응한 결과다. 이렇게 되면 미적 대상과 미감 사이에는 관계적 속성만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 인과적 관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나 성질(qualities)은 우리 자신이 보태거나 감소시킨 것도 주체나 객체 어느 쪽도 그 본성상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제3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26) 같은 곳.

27) Peter Jones, *Hume's literary and aesthetic theory*, p. 261; T 2.1.8, 299; EPM App. 1; *The Sceptic*, pp. 164-166;

28) Barry Stroud, “‘Gilding and Staining’ the World with ‘Sentiments’ and ‘Phantasms’”, p. 260. 이러한 작용을 하는 마음의 기능을 ‘투사’(projection)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Stroud는 정신분석학적 의미가 아닌 사전적 의미에서 투사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이에 대해서 Goldman은 투사 개념으로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나는 Goldman의 입장이 미학적 속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Goldman은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주관적 요소들, 즉 일련의 인상들로부터 도출된 느낌들을 세계의 객관적인 구조로 투사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Alan H. Goldman, *Moral Knowledge*, pp. 58.

흠은 미를 크게 세 가지, 신체미를 포함하는 자연미와 도덕미, 그리고 예술작품들을 포함하는 외부의 사물들이 갖는 대상미로 구분한다. 예술품과 같은 대상미와 달리 우리 자신과 결부되어 있는 신체미와 도덕미는 모두 쾌락을 낳는 힘을 서로 공유하지만, 그 밖의 것을 공유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통 결과는 언제나 공통 원인을 가정하므로 쾌락은 어느 경우나 신체미든 도덕적 미든 미적 대상을 바로 그것으로 느끼게 하는 정념의 실제적이고 유력한 원인이다. 이처럼 흠은 쾌락을 주는 자연미(신체미) 혹은 도덕미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갖게 되는 자부심의 정념을 낳는 외부의 대상미에서 느끼게 되는 쾌락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격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자부심이라는 정념을 유발시키지만 적어도 낳는 외부 사물이 이와 같은 정념을 유발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29)</sup> 즉, 외부의 대상미와 달리 도덕미나 신체미는 우리 자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라는 정념을 갖게 하지만 대상미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미는 자연미나 도덕미처럼 우리 자신과 결부된 속성으로부터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에서 질병과 노화 역시 미와 추가 쾌락이나 고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흠은 ‘미와 추’에 관한 절을 마무리하면서 병약하고 노쇠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체와의 연관 하에서 갖게 되는 소심의 감정을 예로 든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정도 차이나 시간 차이를 감안하였을 때 질병과 노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그러한 소심의 정념은 신체적 여건의 비교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정념이 생겨나는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약하고 노쇠한 사람들이 소심하다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 그들이 소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질병과 노화가 가져다주는 고통 때문이다.<sup>30)</sup>

29) T 2.1.10, 310-311.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다. 우선, 도덕미와 도덕을 같은 것으로 보거나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들은 정념에서 생겨났는가, 아니면 인상의 이중관계(2차 인상)에서 생겨났는가에 의해 구분된다. 모든 미는 그것이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 정념에 속한다. 그러나 덕은 그 자체로 정념이 아니다. 덕은 오히려 반성 인상 중에서도 격렬한 것에 속하는 정념, 그리고 자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정념인 자부심이나 소심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sup>31)</sup>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점에 주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미는 인상이자 정념이고, 근원적 인상 혹은 1차 인상인 쾌락과 고통과 관계한다. 그러므로 미는 분명 쾌락과 고통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미적 유용성과 같은 관계적 속성에서 성립하는 미는 간접 정념이나 2차 인상과 같은 여타의 정념들과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덕을 마주할 때 그 덕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아름다기 때문에 그 대상이 덕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덕은 관계적 속성을 지닌 미적 판단의 대상이다.

이와 같은 관계적 속성의 산물로서 미의 특징은 도덕미와 자연미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분명해진다. 모든 자연미가 의존하는 것은 요소들의 비율, 관계 및 배치인데, 기하학에서와 같은 미의 지각 역시 관계의 지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계 지각은 또 다른 특성과 관계하는 지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과학에서 우리의 정신은 알려진 관계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관계를 탐구한다. 그러나 취미나 외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관계들은 사전에 미리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는 대상의 본성과 우리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쾌적함이나 불쾌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즉, 아름다움은 기하학적 도형 그 자체가 갖는 성질

---

30) T 2.1.8, 299.

31) T 2.1.7, 295-258.

이 아니다. 도덕미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sup>32)</sup>

#### 4. 관계 미학과 공감의 원리

흠에게 미는 정연함, 안전성, 합목적성 등 대상과 주체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자의 반응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고유한 상호 관계적 속성에서 성립하는 유용성의 감정이다. 동시에 이러한 미적 유용성 때문에 미적 판단은 감정 판단이면서 동시에 여타의 감정 판단과 구별된다. 이 점에 주목할 경우, 우리는 흠의 감성 미학을 관계 미학이라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도덕적 행위와 관련해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정념이며, 이성만은 다만 참과 거짓에 대한 지식을 전해 준다고 주장했듯이 흠은 미적 판단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보여준다. 흠에 따르면, “이성과 취미 사이의 뚜렷한 영역 및 업무 차이는 쉽게 확인된다. 전자는 참과 거짓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주며, 후자는 아름다움과 추함, 유덕함과 부덕함의 감정을 제공한다. 거기에서 이성은 더함이나 뺀이 없이 본성상 실제로 성립하는 것들로서 대상들을 발견한다. 반면에 취미는 생산적인 역량을 가지며, 대상이 아닌 인간의 내적 감각으로부터 빌려 온 색을 가지고서 모든 자연적 대상들을 점차 변화하거나 착색되게 하면서, 방법상 새로운 생성이 일어나게 한다.”<sup>33)</sup> 그리고 색, 소리, 맛, 냄새, 열과 냉기는 “대상들이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는 어떤 유사성도 없으며, 이것들은 다만 외부 대상의 작용으로부터 도출되는, 마음 안의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sup>34)</sup> 반면에 미적 활동은 미적 대상과 평가자 상호 호응에서 성립하는 관계적 속성을 표현한다.

32) EPM App. 1.14.

33) EPM App. 1.21.

34) T. 1.4.2. 191-192.

흠의 인식론 체계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단위는 ‘인상’이며 외부 대상은 어떤 실체적 속성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대상을 지각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감각에 의한 정서적 반응으로 얻은 인상일 뿐이다. 이런 철학만이 어떤 편견에 빠지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흠은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험주의가 가지는 난점 가운데 하나는 비록 미적 판단의 대상이 최종적으로는 관계적 속성이라 하더라도 각 개인의 본성적 성향의 차이와 주관적 반응의 상이함에 따라서 한 개인이 내리는 판단도 상대적이며, 따라서 보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취미 판단을 둘러싸고 벌어진 당대의 논쟁에서도 취미 판단은 그것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흠은 상대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흠의 태도는 미적 판단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흠은 도덕 판단과 마찬가지로 미적 판단에서도 취미의 기준에 기초한 보편 판단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흠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미적 판단을 공감 개념과 결합시키기 때문인데, 따라서 공감은 미적 판단의 일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up>35)</sup>

흠은 도덕의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미적 판단의 경우에도 인간의 성향이 지닌 편협함이나 가변성, 특히 편파성에 주목한다. 편파성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신과 관계가 있는 대상, 그리고 보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더 관심을 갖는 성향을 말하는데, 미적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미

35) 이에 대해서 Townsend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또한 흠의 미학이론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Dabney Townsend, *Hume's Aesthetic Theory: Taste and Sentiment*, 특히 pp. 99-105. 흠의 도덕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공감의 원리는 타인에 대한 도덕 판단에서 있을 수 있는 편협함과 편파성을 뛰어 넘어서며, 심지어는 타인에 대한 공정한 칭찬이나 비난도 가능하게 해준다.(T, 579) 이에 대해서는 맹주만, 「흠과 공감의 도덕성」, pp. 50-53.

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내가 동료와 함께 경관이 아름다운 낮은 곳을 여행할 때에 유쾌한 정취를 가진다 하더라도, 긍지나 사랑과 같은 정념을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나와 나의 동료 어느 누구와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sup>36)</sup> 미를 감상하고 평가할 때에도 이런 편파성은 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파적인 성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인간 본성의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 중요하고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그것을 향하게 만든다. 한 정념의 대상이 다른 정념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한 정념에서 그 정념과 관련된 다른 정념으로 전이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관념들의 경우에는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 관념이 정념에 발휘하는 영향력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념과 상상력의 능력은 함께 연관되어 있다. 상상력 없이는 관념이 정념에 대한 영향력을 잃기 때문이다.<sup>37)</sup>

이처럼 편파성과 상상력이라는 인간의 두 가지 성향은 우리가 가족과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대할 때 갖는 감정의 차이에 관한 흠의 예가 잘 보여주고 있다. 흠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는 관계 맺고 있지 않은 대상, 즉 앞서 언급한 덕이나 소유물, 친분 등과 전혀 무관한 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념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해 우리 감정이 갖는 특유의 현상들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는 공통점은 그 가족들로 하여금 일종의 유사한 기질과 성향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혈연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향의 자연적 흐름과 유사성은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 혹은 낮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공감’을 통해서 나타난다. 흠에 따르면 이때의 공감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혈연) 관계가 없어도 사랑과

36) T 2.2.2, 333-335.

37) T 2.2.2, 334-343.

친절을 나눌 수 있는 친숙함(aquaintance)에서 비롯된다.<sup>38)</sup>

이러한 공감의 원리는 미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흄이 『도덕원리연구』에서 공감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제시하는 하나의 예는 위에서 설명한 정념과 관념 그리고 상상력의 관계, 편파성과 공감 등의 개념들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극장으로 들어간 사람은 곧바로 하나의 공통된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엄청난 다수의 견해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경험은 그것이 가진 바로 그 측면에서, 모든 감정들을 자극하여 생겨나는 우월한 감수성 혹은 성향이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모든 감정들을 동포들과 공유한다. 그는 관객들로 가득 찬 외관에 의해 고무되어 열정의 정도를 높여 가면서도 어떤 홀로 있거나 조용한 순간이 되도록 (관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연기자들을 관찰한다. 극장에서의 모든 순간은 재능 있는 시인에 의해, 그것이 마치 미술인 양 관객들과 소통하게 한다. 눈물을 흘리고 놀라움에 떨며 분개하고 크게 기뻐하며 모든 다양한 정념들로 격앙된 관객들은 몇몇 극중 인물들을 부추긴다.<sup>39)</sup>

일부 시의 종류들은 목가적이기보다는 오락적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쾌락의 주요한 원천은 등장인물 속에서 재현되는 부드럽고 유연한 평정심의 심상에서 나오며, 그리하여 독자들에게 유사한 감정을 소통하게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sup>40)</sup>

위의 내용은 극장 안에서 함께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들이 배우들의 연기에 같은 정념을 가지며 공감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관객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겪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의 일인 것처럼 감정에 사로잡히는데, 여기에는 상상력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배우의 대사와 감정표현은 관념이다. 관념의 형식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은

38) T 2.2.4, 352-354.

39) EPM 5.2.24-26.

40) EPM 5.2.29.

인상이다. 관객의 마음에서 인상은 곧바로 2차 인상 혹은 반성인상 등으로 바뀐다.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인물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바람과 어긋나는 사건에서는 감각적인 염려와 걱정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적의 배반이나 학대, 폭압에서 왔다면, 우리의 가슴은 이러한 재앙들을 쓴 작가를 향하여 가장 생생한 분개의 정서를 갖게 된다. 이는 어떤 침착함을 유지하고 무관심적인 것을 표현하는 예술의 규칙(rules of art)과 반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리가 먼 친구나 혹은 재앙에 직접적인 관심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친구는 가능한 한 그 시인이 피해가야만 한다. 관객과 무관심으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정념의 진행을 확인하면서.<sup>41)</sup>

작가는 극중 인물에 공감하며 그의 행복을 바라는 관객의 마음을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극의 즐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면서 관객이 더 생생하고 강렬한 정서를 갖게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에세이 「비극에 관하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흠은 공감을 통해 감정을 교정하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비극의 장점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있는 모든 정서를 상과 표상에 의해 생생하게 가져오게 하며, 그것들이 사실과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의 임무이다.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실재가 발견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실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다.<sup>42)</sup>

여기에서 ‘실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성향을 갖는다’는 것은 곧 실제 상황에서 그에 적합한 감정으로 반응하도록 극을 통해 훈련하고 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은 정서적 인상을 교정하도록 허락한다.<sup>43)</sup> 흠

---

41) EPM 5.2.27-28.

42) EPM 5.2.30.

은 인간이 놀이, 사냥, 일 등에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쾌적하고 생기 있는 정서를 통해 자신의 기운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잊고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기운을 고무 시키고자 애쓴다. 정신은 그 자신을 스스로 즐겁게 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또 생생한 감각을 산출할 수 있고 기운을 부추길 수 있는 낯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생생한 관념 중에서도 특히 정념의 관념은 호의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념은 일종의 정념으로 되어 다른 어떤 심상이나 개념보다도 정신에 더욱 뚜렷한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sup>44)</sup>

훤은 에세이 「취미와 정념의 섬세함에 관하여」에서 취미의 섬세함이 정념의 섬세함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때문에 취미의 상호 소통 또한 공감적 반응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사람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취미의 섬세함이 있는데, 이는 정념의 섬세함과 매우 흡사하며, 번영과 역경, 의무나 상해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미와 추에 대해 동일한 감수성을 산출한다. 당신이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시나 그림을 보여준다면, 그가 갖는 느낌의 섬세함은 그 자가 그(시나 그림 혹은 재능) 모든 부분에 감각적으로 감응하도록 만들 것이다.<sup>45)</sup>

현대미학이론에 선구적 역할을 해온 18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미학자들은 미의 인식과 비평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7세기의 프랑스 고전주의와 같은 형이상학적이며 객관주의 예술론과 미학적 논쟁을 벌이면서 발전해왔는데, 그 중심에 있는 논쟁적 주제들 중의 하나가 미적 판단의 보편적 일치와 불일치 문제였다. 특히 그들과 마

43) Dabney Townsend, *Hume's Aesthetic Theory: Taste and Sentiment*, p. 103.

44) T 2.2.4, 352-353.

45) D. Hume, *Of the delicacy of taste and passion*, p. 4.

찬가지로 취미를 대상으로 하는 비평(criticism)이라는 명칭 아래 미적 경험의 기원과 본성, 미적 판단의 근거와 정당성 문제에 탐구했던 흠의 감성 미학은 관계 미학의 성격을 지닌 이론으로서 당시의 미학적 탐구 즉 취미 이론들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적 판단에 적용되는 흠의 공감의 원리는 그의 감성 미학 및 관계 미학을 넘어서 미적 판단의 보편성과 상호주관적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감의 미학이라 부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흠에게 미적 판단은 보편 판단인데, 그의 공감이론은 하나의 예술작품에 대한 미적 판단의 보편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혹은 미적 감상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취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적 비평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감도 도덕 판단의 경우 그것이 보편적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감의 교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교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감정 판단이기에 편파성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sup>46)</sup> 그러나 도덕 판단의 경우에 이러한 비판이 타당할지는 몰라도 미적 판단의 경우에는 그 역시 감정 판단이면서도 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덕 판단의 경우에는 공감의 교정을 통해서도 행위의 동기력과 실천적 구속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실패한다는 비판이 설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sup>47)</sup> 미적 판단은 이러한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덕 판단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는 판단의 보편성 혹은 보편적 관점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객관적 기준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 흠이 미적 판단의 경우에는 ‘취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보편 판단으로서 취미에 대한 상호소통적인 인지적 비평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46) 맹주만, 「흠과 공감의 도덕성」, pp. 54-60.

47) 같은 글, p. 64.

## 5. 공감 미학과 비평의 해석학

훨의 감성 미학은 관계 미학이면서 공감의 미학이기도 하다. 미학적 유용성의 관념과 결합된 느끼는 성질로서 미의 관계적 속성은 미적 판단을 성립시키는 요체이며, 이러한 판단은 비교의 능력과 함께 미적 판단의 보편적 일치를 공감의 원리에서 발견한다. 사람들이 예술작품들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훨이 취하고 있는 감성주의 (sensationalist) 미학은 특히 프랑스의 예술비평가 뒤보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sup>48)</sup> 17세기에는 개별 예술들이 순수 예술이라는 명칭 아래 하나로 묶이게 되면서 한 예술이 다른 예술과의 관계에서 갖는 비교와 상대적 가치들이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특히 시와 그림의 상대적 우월성이 관심 있는 주제였는데, 취미를 단순히 감정에 의존시키는 견해를 펼친 뒤보스와 달리 훨의 취미 기준은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sup>49)</sup>

훨는 미적 판단은 감정 판단으로서 참과 거짓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감의 능력과 함께 취미의 객관적 기준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보편적 동의의 가능성을 옹호한다. 동시에 훨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미적 판단의 불일치 현상의 원인으로 각 개인의 성격적 기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적 차이, 그리고 도덕적 편견을 들고 있으며,<sup>50)</sup> 또 이러한 원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미의 불일치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보

48) 훨은 에세이 「비극에 관하여」에서 “뒤보스는 그의 시와 회화에 관한 고찰에서 모든 열정과 헌신을 없애버리고 마는 나른하고 무기력한 나태만큼이나 마음의 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적고 있다. On Tragedy, p. 217.

49) Dabney Townsend, *Hume's Aesthetic Theory: Taste and Sentiment*, pp. 76-85.; Peter Jones, *Hume's literary and aesthetic theory*, pp. 264-266.

50) D. Hume, Of the Standard of Taste, pp. 243-248.

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일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점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흠이 제안하고 있는 ‘취미의 조건’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가 들고 있는 취미의 조건은 1) 대상을 예리하게 지각하고 식별할 수 있는 섬세함, 2) 비평의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부단한 연습, 3) 다양한 종류의 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폭넓은 경험을 통한 비교 능력의 계발, 4) 작품 외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길 수 있는 편견의 제거, 5) 전체와 부분의 비교와 이해 등에 필요한 지적 능력으로서의 양식 등을 들고 있다.<sup>51)</sup> 이들 조건들은 모두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계발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것들로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곧 취미의 객관적 기준이며, 이에 따라서 실제로 보편적 동의를 가능한 미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흠에 의하면, 진정한 비평가는 그의 마음이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준비되어 있기에 편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사람이다.<sup>52)</sup> 이렇게 편견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면 비평가는 예술 행위의 주체(배우)와 관객을 분리시켜서 이들의 관계를 3자 구도로 설정할 것을 강조한다. 자격 있는 비평가는 모든 예술작품들의 평가를 각각에 맞는 특정한 관점에서 음미해야만 하며, 실제이건 상상이건 간에 작품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조금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진정한 비평가는 그가 받은 양육과 교육, 그리고 시공간적 환경의 조건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롭고 공평한 관점을 지닌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진정한 비평가의 자세에 대한 강조는 곧 흠이 예술작품에 대한 보편적 소통과 객관적 평가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실제로

51) 같은 글, pp. 235-240.

52) 같은 글, p. 239.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흄이 말하는 공감의 원리가 이러한 보편적 소통의 가능 조건이며, 취미의 계발은 객관적 비평의 가능 조건이다.

이렇게 취미의 기준 즉 객관적 비평과 보편적인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감 능력이 안고 있는 제한적인 편파성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한정된 공감 혹은 편파성을 갖는 공감의 교정을 자유로운 유덕한 행위자와 동일시하는 흄의 주장은 미적 판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흄은 소통 가능한 비평 혹은 인식적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취미의 섬세함을 위한 두 가지 자연적 근거들을 들고 있다.<sup>53)</sup> 첫째, 아름다움이나 시, 웅변, 음악, 회화의 연구만큼 기질(temper)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인 인류의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특정 감정의 우아함을 부여하게 만든다. 이것들이 유발하는 정서는 부드러우며 유연하다. 이것들은 사업과 이익에 몰두하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며, 반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평정심의 성향을 갖게 해주며, 사랑과 우정에 가장 적합한 호의적인 심정(melancholy)을 낳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미의 섬세함은 우리의 선택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차별 없이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랑과 우정에 호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므로 취미의 섬세함은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함이나 호의와 같은 감정이 가지는 품위 있는 성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각의 기능은 더 완전해질 수 있다”<sup>54)</sup>고 생각하듯이 흄은 이런 미를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이 연습과 학습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55)</sup>

53) D. Hume, Of the delicacy of taste and passion. pp. 6-7.

54) D. Hume, Of the Standard of Taste, p. 237.

55) Barry Stroud, “‘Gilding and Staining’ the World with ‘Sentiments’ and ‘Phantasms’”, p. 256.

더 나아가 흠은 취미의 섬세함과 같은 성질은 ‘감수성’(sensitivity)을 기반으로 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것이 아름다운 대상이든 혹은 추의 대상이든 간에 우리는 그 대상을 마주함으로써 일련의 정념을 갖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감수성은 이런 정서적 반응이 가장 생동감 있고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과도 같다. 흠은 우리가 미적 활동을 통해서 감수성을 교양시킬 수 있으며, 그런 지속적인 훈련이 감정의 교정을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유덕한 행위자의 성격을 형성하거나 또는 교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만일 이렇게 도덕적 행위와 비평적 취미 사이에 내밀한 관계가 성립한다면, 취미의 조건이 함의하는 예술작품의 해석과 비평에 관한 흠의 이해는, 그가 모든 현상을 하나의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 위에서 구축하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가변성과 편파성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공감의 윤리가 안고 있는 약점과 한계마저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흠에게서 직접 들을 수는 없다.<sup>5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흠 철학의 전통 아래서 그의 공감 미학과 취미 비평이 보여주는 객관적 해석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예술 작품은 사람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의 한 표현 방식이다. 흠의 미학 이론은 주체와 객체의 상호 관계적 속성으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미적 유용성, 인간 본성의 보편적 원리로서 공감의 능력, 그리고 다양한 비평적 취미의 계발 가능성에 기초하여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과 보편적 소통의 원천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흠은 개인의 성격적 기질, 사회문화적 차이, 도덕적 편견 등과 같이 미적 판단의 불일치 혹은 예술 작품의 비평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평가들이 가능한 이유를 지적하

56) 흠은 『인성론』 제1권 ‘서문’(advertisement)에서 그 스스로 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도덕, 정치, 그리고 비평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 본 연구의 심화는 이 점을 보충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고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은 그와 정반대로 각종 유행의 변화와 그에 대한 반응의 차이 등이 함의하듯이 왜 다양한 판단과 비평이 가능한지를 설명해준다. 또한 미적 판단에서 도덕적 편견이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흠의 언급은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관계에 대한 그의 고유한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구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만든다.<sup>57)</sup> 그러면서도 흠은 다른 한편으로 미적 판단의 보편적 일치 가능성을 주장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특히 미감적 소질의 계발을 통한 판단자의 정교한 판단 능력과 편견 없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품 내지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강조한다. 취미의 기준은 바로 이와 같은 항시 있을 수 있는 판단자나 관찰자가 처해 있는 주관적 및 객관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다. 또한 이렇게 취미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곧 이성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sup>58)</sup> 미적 판단의 보편적 일치 가능성은 작품에 대한 유의미한 미학적 논쟁을 허용하며, 이를 통해 더욱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up>59)</sup> 흠은 이렇게 그의 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의 완성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도상에서 공감 미학과 취미 비평에 기초한 객관적 해석학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만일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의 해석학이 된다면, 흠은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될 것이다.

---

57) Michelle Mason, “Moral Prejudice and Aesthetic Deformity: Rereading Hume’s ‘Of the Standard of Taste’”, pp. 59-67.

58) D. Hume, *Of the Standard of Taste*, p. 229.

59) 같은 글, p. 232; Peter Jones, “Hume’s Literary and Aesthetic Theory”, p. 267.

참고문헌

- 김문환, 『근대미학연구(I)』,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데이비드 흠, 『도덕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1998.
- \_\_\_\_\_, 『정념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1996.
- \_\_\_\_\_, 『도덕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1998.
- 맹주만, 「흠과 공감의 도덕성」, 『철학탐구』 제36집, 중앙철학연구소, 2014.
- 최희봉, 「흠의 미학 : 미적 판단과 취미의 기준」, 『서양근대미학』, 서양근대 철학회 엮음, 창비, 2012.
- \_\_\_\_\_, 「감성과 취미에 관한 흠의 견해」, 『동서철학연구』 제42집, 한국동서 철학회, 2007.
-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lated and edited by Roger Crisp, Cambridge University 2000.
- Costelloe, Timothy M., “Hume’s Aesthetics: the Literature and Directions for Research”, in *Hume Studies* 30 (2004).
- Goldman, Alan H., *Moral Knowled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88.
- Guyer, Paul, *Knowledge, Reason, and Tas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Hume, David, T(=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by Norton, David Fate. and Nortom, Mary J.,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EMPL(=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Eugene, F. Miller (ed.), Liberty Fund Indianapolis, 1985.)
- \_\_\_\_\_, EPM(=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ited by Schneewind Jerome B.,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3.)
- \_\_\_\_\_, EHUO(=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Other Writings*, edited by Stephen Buckle, New york: Cambridge

-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Of the Standard of Taste, in EMPL.
- \_\_\_\_\_, Of the delicacy of taste and passion, in EMPL.
- \_\_\_\_\_, Of Tragedy, in EMPL.
- \_\_\_\_\_, Of Sceptic, in EMPL.
- Hutcheson, Francis, *Philosophical Writings*, edited by R. S. Downie, Everyman Library, 1994.
- Jones, Peter, “Hume's Literary and Aesthetic Theory”, in *Cambridge Companion to Hume*, ed. David Fate Nort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Hume's Aesthetics Reassessed”, in *Philosophical Quarterly* 26 (1976).
- Mason, Michelle, “Moral Prejudice and Aesthetic Deformity: Rereading Hume's ‘Of the Standard of Taste’”, i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9 (2001).
- Scott, W. R., *Francis Hutcheson. His Life, Teaching and Position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0.
- Strasser, Mark, *Francis Hutcheson's Moral Theory, Its Form and Utility*, New Hampshire: Longwood Academic Wakefield, 1990,
- Stroud, Barry, “‘Gilding and Staining’ the World with ‘Sentiments’ and ‘Phantasms’” in *Hume Studies* 19 (1993).
- Townsend, Dabney, *Hume's Aesthetic Theory: Taste and Sentiment*, London: Routledge, 2001.

## Hume's Sentimental Aesthetics and the Principle of Sympathy

Maeng, Jooman · Kim, Dasom (Chung-Ang Univ.)

This paper aims to inquire into the problems of disaccord between aesthetic judgments. The problem of aesthetic judgments and their disaccord is one of the core themes in western modern philosophy, especially aesthetics or theory of taste. Modern aesthetics has developed with disputes about this problem. Hume stands at the peak in the course of their studies. In his 'A Treatise of Human Nature' and essay 'Of the Standard of Taste' Hume shows why this matter happens, and how we can dissolve this. We interpret Hume's aesthetic as sentimental aesthetics, relational aesthetics, and aesthetics of sympathy. Hume's aesthetics is based on a viewpoint which sense of beauty operates in aesthetic judgment, and its contents are relational properties like utility and convenience that is felt in both of subject and object.

According to Hume, the beauty is an indefinable power in objects which causes a pleasurable sentiment, and beauty is not itself a sentiment, nor even a property discernible by the five senses, but rather a property whose presence is felt only when objects with certain detectable properties causally interact, under specifiable conditions, with minds having certain properties. In other words, aesthetic judgments express sentiments reflecting cognitive valuation just as much as universal moral judgments do not directly express desires or aversions, but rather feelings like sentiments of approval and disapproval.

Hume's concept of sympathy is a basic principle which aesthetic

judgments can accord with each other. His standards of taste show that the universal accords with aesthetic judgments between different people are practicable, differing from moral judgments having not universal accord of judgment in spite of possible correction of sympathy.

**Key words:** aesthetic judgment, sentimental aesthetics, relational property, relational aesthetics, taste, sympathy, aesthetics of sympathy, utility

맹주만 E-mail: maengjm@cau.ac.kr  
김다솜 E-mail: kds-111@hanmail.net

투 고 일	2015년 04월 20일
심 사 일	2015년 04월 25일
게재확정	2015년 05월 25일